



현대아이티, 일본에 재난경보 옥외용 디지털 사이니지 공급개시

일본 음료자판기 운영 3위인 Dydo drinco사에 재난경보용 디지털 사이니지 공급

디지털 디스플레이 중견 기업인 현대아이티(대표 이진호:www.hyundait.com)는 일본에 재난경보 옥외용 LCD 디지털 사이니지를 공급 개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사이니지는 특정한 정보를 공공장소에서 보여주는 일종의 영상 장치를 말한다. 이 제품을 자판기 옆에 설치하게 되면 한 공간에서 제품 판매와 정보제공을 동시에 할 수 있어 상호 시너지 효과가 크다.

이번 공급은 일본 자동판매기 운영 3위 업체인 다이도 드링크(Dydo DRINCO, Inc.)가 자동판매기에 재난경보용 디지털

사이니지를 설치하는 사업을 시작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현대아이티는 지난 6월 50대의 현지 샘플 테스트를 마치고 8월에 200대 공급을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총 20억원 규모의 공급을 예상하고 있다. 다이도 드링크의 사이니지 프로젝트 매니저에 따르면 “2011년 600대 설치를 시작으로 2014년까지 3년간 약 총 280만 여대 자판기의 40%정도가 재난경보용 자판기로 설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혀 향후 현대아이티의 옥외용 디지털 사이니지 매출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공급되는 제품은 21.6인치 옥외용 디지털 사이니지로서 자판기 옆에 나란히 설치되어 지진이나 홍수와 같은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안내 방송을 송출할 수 있다. 또한 각 지역 자치단체의 정보 전달에도 사용된다.

이번에 공급되는 제품은 21.6인치 옥외용 디지털 사이니지로서 자판기 옆에 나란히 설치되어 지진이나 홍수와 같은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안내 방송을 송출할 수 있다. 또한 각 지역 자치단체의 정보 전달에도 사용된다.

일본의 경우 거리 곳곳에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어 자판기에 장착된 디지털 사이니지를 통하여 재해 안내방송을 함으로써 빈번히 일어나는 지진 및 홍수 등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아이티의 옥외용 LCD 디지털 사이니지는 비가 많이 오거나 먼지가 많은 환경에서도 강한 내구성을 자랑하고 야외에서도 선명한 시인성을 갖추고 있어 이번 재난경보용 제품으로 채택되게 된 것이다.



현대아이티의 오영석 일본 법인장은 “품질 검증이 뒷받침되어야 초기도입이 가능한 일본 시장의 특징을 고려하였을 때 이번 공급은 옥외용 LCD 디지털 사이니지의 기술력을 입증 받은 쾌거이다”라며 “향후 옥외용 디지털 사이니지 공급을 더욱더 활발히 진행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디지털 사이니지란?

디지털 사이니지는 하드웨어의 측면만을 강조한 DID(Digital Information Display)와는 달리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콘텐츠, 네트워크 등 다양한 IT기술이 복합적으로 이뤄져 정보와 광고를 전달하는 디지털 영상장치이다. 원하는 시간, 장소, 목적에 맞는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대중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이 제품은 새로운 정보·광고를 전달하는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로 부각되고 있다.

□ Dydo Drinco Inc.

-일본 내 자동판매기 운영 3위업체(점유율 9.8%)

-2010년 매출 1,510억엔(약 2조원)

□ 재난경보용 야외 디지털 사이니지 제품 스펙

-패널 사이즈: 21.6인치

-화면 밝기: 1500cd

현대아이티 Tel. 031-630-2548